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물드셨나이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감사주일예배 2025년 11월 23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05번 (감사절)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찬송가 589(신)308(구)

기도 / 조영준 집사

성경 봉독 / 시편 73편 17-28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말씀 선포 /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 박화신 목사

찬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찬송가 588(신) 30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허락하신 새 땅에 / 찬송가 347(신) 38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성소에 들어가기 전 – 불만과 혼란

아삽은 악인이 형통한 현실만 바라보며 마음에 불평이 쌓였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2. 성소에서 – 하나님 앞에서 시선이 회복됨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아삽은 악인의 끝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성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시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3. 성소 이후 – 불만이 찬양과 감사로 바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회복되자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고백했습니다.

성소에서 시선이 바뀔 때 불평은 감사로 변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레 마 의 삶

시편 119편 10-11절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고백을 통해 말씀 앞에서는 신앙의 기본 태도를 보여 줍니다. 전심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결단이며, 그때 성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로고스 앞에 서게 됩니다. 로고스는 신앙의 방향을 잡아 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고백은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레마가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레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 있는 말씀이며,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고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레마의 순종은 마리아의 고백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여졌기에, 말과 생각을 넘어 순종이 앞설 수 있었습니다.

레마의 시각은 요셉의 고백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난과 역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킨 요셉은 시간이 흐른 뒤 “당신들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관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레마로 읽어 낸 믿음의 삶의 증거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 말씀을 마음에 둔 목적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고스를 레마로 경험하며,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살아내는 레마(말씀)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끝까지 정진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늘 주일 예배를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쁜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신 여전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 11월 30일, 다음 주일 각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12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재정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7. 12월 7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8. 이번 주 기도제목
전도회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금요 성경공부(골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예 배 위 원

안 내	조 창		박 승 화			
기 도	한규철(2)	한미숙(9)	조창(16)	조영준(23)	박승화(30)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라는 고백은 현실을 모른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겠다는 의지, 감정보다 진리를 붙드는 태도가 신앙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은 두려움과 변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흔들림의 문제보다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선택, 불안보다 신뢰를 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재기보다 붙드시는 손을 신뢰하는 작은 순종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영적 진보를 만들어 냅니다.